

新書

地域文化・地域人情・地域情報

螢 嶺

28호

1984年 11月

特
輯

* 全北營農・畜産의 어제와 오늘

李健榮 / 復合營農으로 先進農道를

김영환 / 農特事業의 밝은 展望을 기대

柳奎烈 / 農業정책 우선돼야 科學營農이룩

時 論

故郷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 林 哲 洙

明朗社會를 위한 提言 / 金 春 泳

百濟後裔의 긍지를 / 宋 正 德

人間의 두 얼굴 / 朴 亨 圭

先進諸國의 對韓國 동향 / 李 豐 林

家乘을 만들자 / 趙 成 敎

* 故郷을 생각한다 / 申 吉 秀

* 全北禮讚論 / 高 昌 煥

* 卷末부록 / 제 1 회 주부 및 직장여성 한글백일장 우수작모음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1 순종에 대한 축복>

편집후기

◇...우리의 의욕과 정성을 쏟아넣는 노령이 향토개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를 자성해 본다. 경향제현과 집필자, 독자들의 격려와 뜨거운 성원이 노령의 성장을 가져왔고 노령의 성장은 곧 향토의 발전을 도모하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자못 흐뭇할 뿐이다. 좀 더 계획성있는 편집 내용으로 향토개발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간에 눈코 뜰사이 없이 바빴던 한해가 점차 기우러가고 있다. 몸담고 있는 방송국 일도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가를 모를 만큼 정신이 없는데다가 문화원의 행사와 사업도 줄이어 계속되었고 또 하반기에는 월간처럼 발행되는 노령의 편집에 사실 정신없이 지냈다.

앞으나 서나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많은 일을 하다보니 어떤때는 가정을 소홀히 하게 생각하는 듯도 해서 여간 참잡하지 않을때가 없잖아 지이기 때문에 미처 한가한 잡념을 늘어놓 틈이 없었다.

편집후기를 쓸때마다 허탈해진다. 그동안 하루가 멀다하게 사업과 행사를 치루었을 때도 그러지는 않았는데 송년호를 구상하면서 쓰는 편집후기의 감회는 실로 뭐랄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다. <宋>

◇...가을! 행사와 사업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노령문화제, 주부 및 직장여성 한글 백일장, 일요학교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판소리 감상회, 제2회 노령봉사상 시상 특히 노령봉사상 후보 대상자 모두가 상을 받아야 마땅한 대상자들 였으나 탈락 시켜야 하는 심사위원들의 심고에 몸들곳을 몰라 했다. 영광의 얼굴들과 함께 그분들에게도 경의를 드리면서 내일을 약속 하고자 한다.

<柳>

蘆

嶺

第28號

1984年 11月

1984年 11月 15日 印刷 / 1984年 11月 20日 發行

《非 賣 品》

發行人 : 金 光 鎬
編輯人 : 張 明 洙
(「蘆嶺」編輯委員會)

印刷人 : 咸 清
登錄日字 : 1981年 8月 10日

文公部 登錄番號 : 바-962號

發行所 : 社團 全州 文化 院
法人

全州市 慶園洞 1街 104~5 電話 ⑥ 7500

印刷所 : 鮮明印刷社 電話 ②0030·②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한다.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地域文化
地域人情
地域情報

蘆

嶺

제28호 (1984年 11月) 目 次

8 卷頭 隨想 / 明洞農業 張明洙

□ 特輯 / 全北營農 · 畜産의 어제와 오늘 □

- 11 李健宰 複合營農으로 先進農道를
16 金容信 農特事業의 밝은 展望을 期待
20 柳泰烈 農業정책 우선돼야 科學營農이룩

□ 時 論 □

- 24 故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林哲洙
28 明朗社會를 위한 提言 金春泳
31 百濟後裔의 矜持를 宋正德
34 人間의 두 얼굴 朴亨圭
40 先進諸國의 對韓國 동향 李豐林
44 家乘을 만들자 趙成敎

- 66 * 故鄉을 생각한다 / 마당재와 임봉리의 전주시절... 申吉秀
69 * 全北禮議論 / 全北은 나의 精神的인 支柱... 高昌煥
72 * 醫境 / 診 察 金然中

* 詩 *	48	金海剛		기도하는 마을으로
	50	趙炳喜		송백비
	52	全漢相		다들 이 소리
	54	魯珍善		山井湖水에서
	56	유승식		만경강에서

* 隨 筆 *

58	이 사람은 그 사람		김명희
59	정서문화에 심혈을		金喜坤
60	善人 두 사람		朴珍秀
62	인 사		宋明錫
64	막걸리 예찬		柳光烈

* 主題있는 散文 *

74	우리말 우리글 / 민간어원설 ③		崔昌烈
75	좋은글귀 풀이 / 虎溪三笑		柳豐淵

* 連 載 *

76	世界 8個國 巡訪紀⑬ / 旅程 12萬里		柳鳳永
80	全北映畵 裏面史⑳ / 興行 이야기		卓 光
86	全北人物列傳㉔ / 抗日鬪士 田五豐		宋榮相

* 卷末附錄

90	제1회 주부및 직장여성 한글 백일장 우수작 모음
112	편집후기

연설을 했다.

이후로 이 학생은 물론 다른 원생들도 인사를 빠뜨리는 일이 없었다.

막걸리 예찬



柳 光 烈

〈(주)慶農전북사무소장〉

우리의 술 막걸리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맛좋은 명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당나라의 시인 李商隱은 「누룩으로 빚은 신라주의 기운이 새벽바람에 쉬이 사라질까 두려워라」하고 노래했던 것을 보면 서민의 술로서 첫손에 꼽혔던 모양이다. 술의 어원은 범어에서 쌀로 빚은 술을 뜻하니 「Sura」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나는 어릴적부터 막걸리 맛을 배우며 자란 탓인지 어느 술보다 막걸리를 좋아

한다.

소학교 시절, 동네 처녀가 시집이라도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술찌게미를 꼭 얻어 오시곤 했다.

「술을 마실 줄 알아야 사내」라 하며 당원을 넣은 술찌게미를 우리 형제에게 먹이고 누나가 먹고 싶어라 해도 「여자는 술맛을 알아서는 안된다」며 주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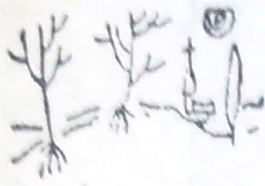
언젠가는 그걸 너무 많이 먹고 취한 김에 잔치집에서 부끄러움도 타지 않고 노래를 불러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동화같은 기억이 있다.

막걸리를 같이 나누는 사람과는 우선 이권이 개입되지 않아서 좋다.

주판을 튕기는 술자리는 사실 술맛이 나지 않는다.

나는 직업상 농군과 막걸리를 잘하는 편이다.

하얀 사발 가득히 받아 권하면 방금 받을 때 고온 손을 쭉쭉 비벼 흙을 털어 내고 한 손가락 짚은 양념으로 막걸리에 적시면서 입맛을 췌쩌 다시며 마신다. 때로 급히 마시느라고 막걸리가 턱 밑



에 떨어지면 손바닥으로 쓱 문지르면 그만이다.

흙물은 손을 다시 적시며 내게 권하는 모습에서 나는 철철철 넘치는 인간의 정을 느낀다.

또 막걸리는 값이 싸고 심한 갈증을 해결시키는데 맥주나 청량음료수에 비할 바 없이 으뜸이다.

그것은 한 사발에 250원이면 족하며 철따라서 풋고추며 오이, 풋마늘이 나오기도 하고 마음씨 후한 할머니는 여러 사람의 젓가락이 닿은 김치일망정 소담스레 담아 내 놓는다.

막걸리의 안주로는 역시 된장 짬뽕 먹는 풋고추맛이 일품이다.

그 맛을 어찌 고급 음식점의 생선회에

알

림

전주문화원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 정서 교육을 위한 일요학교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비유할 수 있을까? 허끝에 감치는 된장은 고향의 맛이고 매콤한 풋마늘은 세상사는 맛이기 때문이다.

막걸리가 체내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성인병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치를 낮춰 저혈압수치를 높여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일찌기 막걸리의 원주를 보고 약주라 했던 우리 선조의 슬기에 고개가 숙여진다.

요사이 이 좋은 술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막걸리를 사랑하며 마실 수 있는 벼를 찾아 다이얼을 돌린다.